

“외국 상표 범람이 세계화가 아니지요”

재미과기협회장 徐文源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대담 / 朴澤奎

(건국대 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일시 : 1995. 2. 9

장소 : 과총 회의실

“깨끗한 공기가 우선인가,
10분 더 빨리 가는 것이 우선인가,
세계화를 앞당기는 길은
우리들 스스로의 의식개혁입니다”
오는 7월 대규모
학술대회를 앞두고 귀국한
재미과기협 徐文源회장을
만나보았다.

■반갑습니다. 이번 귀국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미과기협이 창립된지 33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발전 성장속도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미과기협을 더 높은 단계의 모임으로 부상시키고 활동을 폭넓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의 바람입니다.

작년에 연례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비교적 알찬 결실을 거두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학술회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격이 높은 학술회의가 되도록 국내에서 저명한 기업인들과 과학자들이 참석했지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

년 7월에도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상정립도 필요하지만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학술행사,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술이전을 계속하고 적절한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의 교포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자들을 통해 최신 기술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작정입니다. 특히 재미한국과학기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이 사업은 전임회장단 즉 22대부터 시작하여 여러 기업의 협조로 시행단계에 왔으나 막대한 비용이 계속 필요하고 더욱이 운영을 위한 Infrastructure가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장기적 투자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세계화 운동이 정부차원을 넘어서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노도(怒濤)와 같이 밀려들고 있는데 세계화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분야마다 접근방법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화는 외형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에 우선하여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합니다. 서회장께서는 이 세계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의 고유상표 개발절실

저는 세계화의 개념을 두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외형으로 볼때 외국 상표의 햄버거나 호텔체인이 서울에 범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계화돼 있다고 보면 잘못된 시각이지요. 이것은 세계화를 한 모습이 아니라 세계화를 당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형적으로 한국이 뉴욕이나 서구의 나라와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먼저 세계를 공략하는 세계화 자세를 주장하고 싶군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무역전쟁, 경제전쟁 속에서 21세기의 한국은 우선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실력과 경영구조를 갖추어 세계각국을 공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상품들이 세계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남의 상표를 빌려서 시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고유상표를 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의 고도화, 생산성, 수익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특히 시스템화가 긴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세계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세계화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내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의 세계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민족의 긍지 살려야

내적인 세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구조의 과감한 개혁,

도덕성의 회복 등은 국민적인 자각에서 비롯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세계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의 세계화 못지않게 문화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국민의식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신적인 면에서 1등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도덕적, 문화적 면에서의 1등 국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인 자산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개발하면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음악, 한국문학, 한국예술, 한국술, 한국김치 등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폐쇄적 국수주의적 사상을 버려야 하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세계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상해서 세계에 알려진 나라라고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정신적·문화적으로 아직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극도의 물질숭배사상, 모든 가치척도가 물질로 돼버린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문화를 고양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문화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 믿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환경, 교통문제, 특히 스모그현상, 수질오

염문제 등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연구하는 기본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겁니다. 왜 자동차가 많은가, 교통이 혼잡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시스템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공기가 깨끗해야 하는게 우선인가, 10분 더 빨리 가는게 우선인가? 우리가 중시하는 것,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잘못된 의식을 깨달아 고치는 것이 세계화를 앞당기는 길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는 일, 예를 들어 깨끗한 물,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서울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성형한 옛 애인 같아

몇년전 잡지에 '봄과 고향땡'이라는 수필을 쓴 일이 있지요. 이 글에서 저는 고향에는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성장한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등 세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마지막 고향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들면서 두번째 고향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서울은 성형수술한 옛 애인의 모습』 반가워서 만나보았더니 옛날 그 애인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그나마 옛 구석이 여기저기 남아있기는 한데 옛모습, 이름답던 서울의 향수가 되살아나 길가를 걸으면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글 속에 바로 내가 느끼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모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좀더 아름답고 짜임새있게 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절박한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공원도 곳곳에 조성하는 등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쏟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희장께서는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신문사 기자, 경향신문사 기사를 잠시 거치는 등 특이한 경력도 있는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서울대 1학년 재학시절부터 학생기자, 그리고 나중에는 편집장까지 지냈지요. 졸업후에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1년간 전임기사를 했고 경향신문사 문화부에서 4개월간 견습기자 생활도 했어요.

1962년에 도미해 본격적으로 전공인 섬유공학을 공부했어요. 1964년에 석사학위 취득후, 계속해서 69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직회사인 벨링톤(Berlington)에서 69년부터 18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통계학·섬유공학 겸직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섬유산업은 매우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부터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High Tech.의 정의와 개념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옷은 5천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은 같지만 만드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우리나라에는 High Tech.만 있고 그 과정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어요.

기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



▲서문원회장(左)이 박택규본지편집위원장에게 세계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는 것은 High Technology Process Development가 안되고 이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High Tech. Process를 못하면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20여년전에 미국에 한글학교를 설립 하였고 재미한인학교 협의회장직을 맡는 등 교포 2세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계속하여 대통령표창,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으셨는데 재미교포 2세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0년전 한글학교운동 보람

1974년에 설립된 한글학교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았어요. 1980년에 재미한인학교협의회를 발족시켰고 여기에 1천여개교가 가입되었어요. 제가 미국생활에서 시간과 정성을 가장 많이 쏟은 것이 한글학교운동입니다.

2세 교육은 한국과학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세들에게 한글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한국을 위한 일에 동원할 수 없지요. 1년에 과학기술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교포2세가 7천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5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 1백50만명이 살고 있는데 1970년대 초에 대규모로 이민한 1세들의 자녀가 작년부터 박사학위를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2세들 중에는 과학기술관련 전공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10년안에 한국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

한 면에서 이중국적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도 그 문을 활짝 열어 세계화의 첨병이 돼야하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제도적으로 세계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생존경쟁의 도구로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복지, 건강, 문화, 예술의 도구로 확대되는 것이 세계화의 추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박사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195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10주년 기념 전국남녀대학생 학술토론회가 KBS 주최로 열렸지요. 그때 제목이 '원자력이 용의 한국적 방안'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우수상을 받은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끝으로 가족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아내 김지숙(서울대 약대졸), 아들 동빈(John·64년생,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전자공학 석사), 손자 요나단(6개월), 딸 은미(Carolyn·69년생, 듀크대 정치학과생) 등 남매가 있지요.

■오랫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미과기협을 발전에 기원하며 서박사의 가정에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⑤7